

보도자료

2019년 11월 2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혁신과

담당자 : 석옥희 사무관
담당자 : 김도현 사무관

연락처 : 055-211-3072
055-211-3082

경상남도, 경남형 제조혁신의 발전적 해법 찾아 독일, 프랑스 방문

- 다쏘시스템의 경남본부설치, 협력사 이전 등을 위한 협력의향서(LOI) 체결
- 독일 아헨공대와 기술교류, 방문강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합의

문승욱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대표단(이하 대표단)이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독일 및 프랑스의 제조혁신 현장을 방문해 현재 경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현지 고위 관계자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표단은 프랑스의 다쏘시스템을 방문해 3D기반 산업용 플랫폼, 인력양성 시스템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 협업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다쏘시스템’은 프랑스 내 최대 IT기업으로 독일 지멘스와 함께 제품수명주기(PLM) 솔루션을 선도해 온 글로벌 공급 기업이다. 경남도는 연내 다쏘시스템의 경남본부설치, 5개 협력사 이전 및 지역인재 30명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0억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다쏘시스템의 경남본부설치를 계기로 스마트공장 관련 수요기업들의 일차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공급기업의 글로벌 스마트공장 시장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 대표단은 독일 아헨공과대학(이하 아헨공대)을 방문했다. 아헨공대는 제조업 중심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핵심대학인 점,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남형 제조혁신을 위한 협업 및 벤치마킹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아헨공대 산하 연구기관의 도내기업 컨설팅, 기업 간 기술교류 및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상호 방문강의, 현장실습 연계 교환학생 프로그램(연간 5명) 등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대표단은 독일 일정 중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PT),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 등 산학연구소 현장을 견학하고 세계최대 의료기기 박람회인 Medica 2019가 열리는 뒤셀도르프를 방문해 한메드, 비에스엘, 에버레이드, 영케미칼, 디에프아이, 엠텍글로벌 등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업체 6곳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또한 프랑스에서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인 에어리퀴드사와 경남도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했고, 스타트업 플랫폼인 스테이션 F에 방문하여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청취했다.

대표단 단장인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해외방문은 다쏘시스템과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아헨공대를 비롯한 산학클러스터 내 연구소와 협업 및 교류 확대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향후 업무협약 체결 등 방문 성과를 잘 마무리해 경남의 제조혁신을 더욱 내실화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국제박람회가 국내에서 열릴 경우 국내외 참가기업들을 창원 스마트산단 현장에 초청하는 ‘스마트산단 로드쇼(가칭)’를 추진하는 등 교류 확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참고자료(다쏘시스템(주) 및 아헨공과대학교 소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혁신과 석유회 사무관(055-211-3072), 김도현 사무관(055-211-30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쏘 시스템(주) 본사 개요>

- 본사소재/설립 : 프랑스 벨리지/1981년
- 종업원수/지사현황 : 전 세계 약 16,000명(국내 260명)/140개국
- 매출(2016) : 32억 유로(약 4조원)
- 고객사수 : 전세계 140개국 22만 혁신기업
- 사업분야
 - IT소프트웨어(프랑스 1위 IT기업)
 - 3D설계와 스마트팩토리 분야 등
- 한국내 투자 : 다쏘시스템 대구 조선해양 R&D센터에 900억원 투자
(2010년 ~현재)

< 다쏘 시스템 코리아(주) 회사 개요>

- 한국지사 대표 : 조 영 빈 (대표이사, 2009년 취임)
- 소재/설립연도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 1997년
- 주요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
- 종업원수 : 260여명
- 매 출 액 : 1,624억원(2018년)
- 주요거래처 : 삼성전자, POSCO, LG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 경남도 협업사업(안)
 - 다쏘시스템코리아(주) 연구소 유치 등
 - 다쏘社 보유 시뮬레이션 솔루션 전문인력을 토대로 스마트산단 사업 참여희망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사업 ⇒ ‘20년 추진)

□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대학

-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아헨에 위치한 'RWTH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ä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이하 아헨공대)'은 재학생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가 주축이지만, 의대와 인문대, 사회대도 있는 종합대학이다.
 - ✓ 대학구성: 9개 학부 106개 학과에 260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42,298명의 학생이 재학, 9,000명의 직원이 재직 중
 - ✓ 예산규모: 한 해 9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과대학
- 독일 기업체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대학 출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대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의 전 회장 벤델린 비데킹(Wendelin Wiedeking)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우도로슈(Udo F. Loersch)도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 국내에서는 1968년 아헨공대에서 기계금속 석사학위를 받은 故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2002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헨공대를 대표하는 원로자문회의의 명예시네이터(Ehrensensator)에 임명되기도 했다.

□ 산학협력이 중심인 대학

- 대학은 크게 Campus Mitte, Campus Melaten, Campus West로 공간 구획되어 있고 이중 Campus Mitte는 대학교, Campus Melaten은 산학협력공간이다. Campus Melaten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학협력이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 아헨공대 공학부 학생들은 디플롬(독일대학 학위)을 따기 전 10학기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업체 실습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인턴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실용학문을 보고서로 내야 한다. 아헨공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럽 어느 공과대학교보다도 많은 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독일의 대학 중 뮌헨 LMU, 하이델베르크대학, 아헨공대가 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자금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